

“텃밭 사수” 국민의당 호남 구애 총력전



13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북 지역 순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대표(왼쪽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정배 전 대표, 박지원 대표, 손학규 국민주 권개혁회의 의장,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장. /연합뉴스

최고위 전국순회 전주시 첫 개최...전북 맞춤형 공약 발표

광주 촛불집회 참석·전일빌딩 방문 등 1박2일 민심 행보

국민의당이 정치적 기반인 호남 지역에서 당세 회복과 대선 주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호남 지역을 석권했음에도 최근 당 차원이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밀리면서 텃밭에서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날부터 전국 순회 최고위원회를 시작한 국민의당 지도부는 첫 출발지로 전북 전주를 선택해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을 소화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을 내놓는 등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과거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호남 홀대론'도 다시 끄집어내는 등 지역 민심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지원 대표는 최고위에서 "처음 전북

에서 최고위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의당이 전북 도민의 희망이 되고 전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한다"면서 "전주 시민과 전북 도민의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 열기를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전주와 전북 발전을 위해 많은 건의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최근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도 함께했다. 손 의장은 안철수 전 대표 등과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대비한 듯 최근 연일 호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손 의장은 "전북 패권정치의 다른 이름이 곧 영남 패권정치이고 특정 지역 예산·인사 독식 정책"이라며 "연방자치 수준의 지방분권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경선 후보인 천정배 전 대표도 "촛

불 국민혁명이 100일이 넘게 진행되는 동안 개혁입법은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은 신선 높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환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선 경선이 점입가경에 몰입하고 있다. 도로 진노(진노무현), 도로 참여정부 2기로 회귀하고 있다"며 "호남을 철폐하고 햇볕정책을 범정에 세우고 김대중의 민주당을 쫓은 사람들이 오늘 호남의 지지를 호소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새만금 신공항 조기 건설 등 전북 발전을 위한 11대 대선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전북도와 정책협의회를 거쳐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전라도 개도 1천년'을 기점으로 밀레니엄 파크 조성, 비무장 새만금 신공항 조속 추진, 금융허브타운 조성, 전북대 약대 신설 등이다.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도크(dock·선박건조대) 폐쇄 방침에도 국민의당과 전북도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당 최고위원회와 전북도는 이날 정책협의회를 열고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 타격이 크다고 판단, 정부 부처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폐쇄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향후에도 호남에 대한 쌍끌이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당 지도부가 지난 11일 저녁 광주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서 참석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80년 5·18 당시 헬기 기총사사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을 방문하는 등 호남 구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손 의장이 지난주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지역을 아우르며 이어, 이번 주에는 안 전 대표가 광주에 이어 전북지역의 표심을 훑고, 국민의당은 20일에는 광주 최고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우상호 “특검 연장 안하면 국회가 법으로 연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3일 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시한 연장 문제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여부에 대해 수일 내로 입장을 밝혀달라”며 “연장하지 않겠다면 국회에서 법으로 연장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특검 연장은 특검법 통과 때 여야 원내대표가 가장 120일을 보장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의

수시기간은 오는 28일로 종료되지만 특검의 요청과 황 권한대행의 승인에 따라 한 달간 연장이 가능하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고민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다”며 “특검 연장은 의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시한 연장이 되지 않으면 지금 수사가 전부 중단되면서 범법자들만 신이 날 것”이라며 “검사 출신인 황 권한대행이 범법자가 좋아할 일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바른정당 “탄핵 기각시 의원직 총사퇴”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기각 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전날 밤 늦게까지 계속된 ‘필승전략 집중 워크숍’에서 의원들이 이 같이 결의했다고 13일 전했다.

정병국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기각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행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되, 탄핵이 기각될 경우 ‘탄핵 주도 정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전날 워크숍에서 총사퇴론을 제기해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낸 홍철

호 의원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지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말 박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탄핵안의 국회 통과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이날 당 대선후보 경선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에는 기존에 임명된 이종우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인사 4명과 당내 인사 7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고 오신환 대변인은 최고위 결과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연평해전 때 DJ 축구관전 사실무근”

김홍걸, 정규재 명예훼손 고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2002년 연평해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축구관전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이같이 밝혔다.

정 주필은 지난달 KBS TV에 나와 “김 전 대통령이 연평해전 당시 일본에 축구를 보러 갔다. 하지만, 탄핵 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해당 발언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며, 언론사 간부가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다”라며 “앞으로도 무책임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3일에도 “연평해전이 벌어진 2002년 6월29일 김 전 대통령은(대구에서 열린) 3~4위를 관전하려다 교전발생 보고를 듣고서 이를 취소했다”며 “이는 당시 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예비후보 등록 마무리 ‘경선모드’

선거인단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지지도 모집 승패 판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부터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 모집에 나서면서 대선주자간 세력이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주자들은 13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선거인단 모집에 나서는데 동시에 후원회 출범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당분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경

선 스케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요구하면서 3월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당내에서는 경선 준비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에 힘이 실리면서 선거인단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경선 일정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면서 각 주자 캠프는 실무 준비로 분주해졌다.

특히 이번 경선은 일반 국민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 측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얼마나 선거인단으로 데려올 수 있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의 경우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팬클럽’ 사이트를 중심으로 벌써 지지자들의 선거인단 신청을 최대한 독려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 선거인단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온라인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안

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선거인단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 역시 SNS 기반 지지자들 모임인 ‘손가락 혁명군’이 선거인단 모집의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캠프별 후원회 조직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은 후원회장을 두고 막바지 고민을 이어가고 있으며 후보민심을 살피기 위해 발족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 사이에서 후원회장을 모집해 온 안 지사 측에는 450여명이 자천·타천으로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자유한국당’ 공식 개명

새누리당이 13일 공식적으로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꿨다.

새누리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잇

따라 열고 이같이 당명 및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은 정확히 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영어 명칭은 ‘Liberty Korea Party’(약칭 LKP)를 채택했으며, 약칭은 ‘한국당’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담양 대덕 호두농장 특산물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담양 대덕의 특산물로서 부모님 **효도선물**, 명절선물로 최고입니다!!

어린이들 머리에도 좋은 호두 하루 3~4알로 건강을 지키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안전성 검토 무농약 인증

2016년 신임정장상 수상

담양 대덕 호두농장 대표 진철호
061-382-4728 / 010-3604-6712
전남 담양군 대덕면 남대덕로 424-2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대신프리모가발